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영화 작품정보

[장편과정 18기 실사극영화]

작품명	오가 (영문제목 미정)
작품정보	<p> 각본/연출 정효정 촬영 이도현 프로듀서 김한울</p> <p> 출연 김승화, 박아인, 정동환, 허준석, 기소유</p> <p> 러닝타임 약 1시간 35분(예정)</p> <p> 장르 심리 스릴러</p> <p> 제작연도/날짜 2024년 (크랭크인 2024.11.1. / 크랭크업 2024.11.30.)</p>
시놉시스	<p>미조는 집안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자, 양우마을 경제를 책임지는 공장 사장이다. 성공한 미조를 쫓아다니는 공장 임원 재강을 옆에 끼고, 미조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보호하는 이미지를 구축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며 산다.</p> <p>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할머니가 손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 마을이 흉흉한 가운데, 은조의 애인이자 미조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인 루카가 은조를 살해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손자를, 루카는 은조를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각 그 사람의 행세를 하는 나쁜 것이라 믿는다는 점이였다. 대체 이런 일이 왜 마을에 일어나는 지 왈가왈부하는 중에, 은조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저주’가 마을에 퍼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굶을 해야 된다고도. 미조와 마을 사람들은 그 동안 무당이라며 했던 은조의 한량 행세에 그 말을 비웃고 무시한다.</p> <p>그러나 같은 일이 공장에 또 발생하면서, 결국 은조의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람들이 은조에게 점점 의지하기 시작하자, 은조는 이 저주의 근원이 미조라고 지목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미조를 굶판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조는 은조의 장사에 놀아나면서 자신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 이를 거부하지만, 점점 악화되는 마을 사정에 할 수 없이 굶을 받고, 굴욕을 참는다.</p> <p>그러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낙원과 조카 이수에게도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못 알아보는 상대는 미조 자신이 아니라 은조라는 것. 미조는 그로써 알게 된다.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은조라는 사실을. 젊음을 바쳐 가족과 마을에 봉양하고 희생해왔건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기꾼 무당이라니. 이 불행은 내가 시작한 건데, 나만 안전하다니! 미조는 순식간에 공장과 마을의 문제는 잊는다. 은조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진실이 떠벌려지고, 겨우 얻은 사랑과 명예를 잃을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어떻게든 가족들이 은조를 죽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p>
기획의도	<p>시작은 전라북도 익산의 장점마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주민의 30% 이상이 공장의 오염물질로 사망한 환경재난 사건이다. 보통 이런 재난 사건을 다루는 영화는 의로운 주인공을 내세운 사회고발드라마 장르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재난 상황을 뚫고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성공적인 스토리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이곳은 언제 어떻게 나를 죽일지 모르는 병마가 모습을 감추고 있는 공간, 하지만 그 공간이 내가 떠날 수 없는 나의 집이라는 사실은 더욱 두려운 일이었</p>

	<p>을 것이다. 그리고 공해가 즐비한 지구 어디든 장정마을이 될 수 있기에, 이 두려움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 퍼지고 있다.</p> <p>그렇다면 이 두려움에 가장 잠식될 만한 인물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공장 사장이 아닐까 했다. 욕망이 클수록 두려움도 큰 법이기에. 때 돈을 벌고, 마을 경제도 살리고, 땀땀거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었던 바로 그 공장 때문에 결국 죽게 될 운명에 처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p> <p>욕망이 두려움으로 변환되는 한 인간의 아이러니를 심리 스릴러 장르로 표현해 색다른 시각으로 환경재난 사건을 조망해보고자 한다.</p>				
연출의도	<p>극 중 수많은 인물을 살해하였지만, 나는 생명을 존중하자는 소망을 담아 이 글을 썼다.</p> <p>우리의 행동원리는 대부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다' 에 수렴한다. 좀 잘 살아보려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욕심내고, 소비하지만 되레 결핍은 늘어나기만 한다. 좀 잘 살아보려고 공장을 짓고, 원전을 세우고, 열대우림을 파괴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영속이 위태로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좀 잘 살아보려는 일이 잘 살 수 없는 방향, 죽음으로 흐른다. 마음을 채운 것은 잘 살아보려는 욕망 뿐, 어느새 생명은 망각되었기 때문일 테다.</p> <p>마을을 홀로 부양하던 소사공장은 가장 위험한 재해가 되고, 나를 가장 사랑하던 사람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나는 욕망을 성취해내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둠삼아, 생명에 빛을 밝히려 한다.</p>				
캐스팅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2 1081 582 1570">  </td> <td data-bbox="582 1081 1434 1570"> <p>김승화(미조 역)</p> <p>소사마을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료 공장의 사장. 아버지 낙원, 쌍둥이 언니 은조, 그리고 은조의 딸 이수를 먹여 살리는 가장이기도 하다.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비료 공정에 편법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데, 그 부작용으로 마을에 문제가 발생하자 혼란에 빠진다. 정의롭고 희생적인 마을의 리더, 힘없는 주민들의 울타리. 스스로조차 그렇게 믿고 있었건만, 진실이 밝혀져 가는 초조함과 광증을 마주하는 두려움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본색이 드러난다.</p> </td> </tr> <tr> <td data-bbox="352 1570 582 2038">  </td> <td data-bbox="582 1570 1434 2038"> <p>박아인(은조 역)</p> <p>미조의 쌍둥이 언니. 마을을 떠났다가 미혼모가 되어 돌아왔고, 그 이후에는 신내림을 받았으며 마을 무당행세를 했지만 실력이 없어 사실상 백수로 미조에게 빌붙어 살고 있다. 어릴 때는 미조보다 공부도 잘 하고 사교성도 좋았던 자신이었는데. 남자 잘못 만나 인생 한 번 빼앗겼다고 그만 미조의 그림자가 된 것 같은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자 그동안 좀처럼 내리지 않으시던 조상신이 오셔서 그러신다. 이젠 저주라고. 그러니 한 몫 잡을 기회라고. 마을 사람들의 혼란을 비집고 신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미조와의 전세 역전을 욕망한다.</p> </td> </tr> </table>		<p>김승화(미조 역)</p> <p>소사마을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료 공장의 사장. 아버지 낙원, 쌍둥이 언니 은조, 그리고 은조의 딸 이수를 먹여 살리는 가장이기도 하다.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비료 공정에 편법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데, 그 부작용으로 마을에 문제가 발생하자 혼란에 빠진다. 정의롭고 희생적인 마을의 리더, 힘없는 주민들의 울타리. 스스로조차 그렇게 믿고 있었건만, 진실이 밝혀져 가는 초조함과 광증을 마주하는 두려움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본색이 드러난다.</p>		<p>박아인(은조 역)</p> <p>미조의 쌍둥이 언니. 마을을 떠났다가 미혼모가 되어 돌아왔고, 그 이후에는 신내림을 받았으며 마을 무당행세를 했지만 실력이 없어 사실상 백수로 미조에게 빌붙어 살고 있다. 어릴 때는 미조보다 공부도 잘 하고 사교성도 좋았던 자신이었는데. 남자 잘못 만나 인생 한 번 빼앗겼다고 그만 미조의 그림자가 된 것 같은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자 그동안 좀처럼 내리지 않으시던 조상신이 오셔서 그러신다. 이젠 저주라고. 그러니 한 몫 잡을 기회라고. 마을 사람들의 혼란을 비집고 신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미조와의 전세 역전을 욕망한다.</p>
	<p>김승화(미조 역)</p> <p>소사마을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료 공장의 사장. 아버지 낙원, 쌍둥이 언니 은조, 그리고 은조의 딸 이수를 먹여 살리는 가장이기도 하다.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비료 공정에 편법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데, 그 부작용으로 마을에 문제가 발생하자 혼란에 빠진다. 정의롭고 희생적인 마을의 리더, 힘없는 주민들의 울타리. 스스로조차 그렇게 믿고 있었건만, 진실이 밝혀져 가는 초조함과 광증을 마주하는 두려움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본색이 드러난다.</p>				
	<p>박아인(은조 역)</p> <p>미조의 쌍둥이 언니. 마을을 떠났다가 미혼모가 되어 돌아왔고, 그 이후에는 신내림을 받았으며 마을 무당행세를 했지만 실력이 없어 사실상 백수로 미조에게 빌붙어 살고 있다. 어릴 때는 미조보다 공부도 잘 하고 사교성도 좋았던 자신이었는데. 남자 잘못 만나 인생 한 번 빼앗겼다고 그만 미조의 그림자가 된 것 같은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자 그동안 좀처럼 내리지 않으시던 조상신이 오셔서 그러신다. 이젠 저주라고. 그러니 한 몫 잡을 기회라고. 마을 사람들의 혼란을 비집고 신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미조와의 전세 역전을 욕망한다.</p>				



정동환(낙원 역)

미조와 은조의 아버지. 미조가 비료 사업을 하는 공장의 원래 사장이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병들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미조에게 사업을 물려주었지만, 매일 공장 사무실에 출근해 대리청정을 하고 싶어 한다. 미조의 새로운 사업 방식을 마뜩잖아하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싶지만, 오로지 힘의 원리로만 움직이는 사람이기에 지금은 힘이 센 미조의 말을 잘 듣고 있다. 언젠가 내세울 발톱을 숨기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영화 작품정보

(장편과정 18기 실사극영화)

작품명	지우러 가는 길 (영문제목 미정)	
작품정보	각본/연출 유재인 촬영 백재령 프로듀서 김지형 출연 심수빈, 이지원, 장선 러닝타임 약 1시간 49분(예정) 장르 성장 드라마 제작연도/날짜 2024년 (크랭크인 2024.10.28. / 크랭크업 2024.12.4.)	
시놉시스	경기도 외곽의 한 기숙사 고등학교. 윤지는 담임 종성과 비밀 연애 중이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종성은 연락두절 잠적해버렸다. 혼자서 임신중단을 하기 위해 불법 낙태약을 구매하려는 윤지, 룸메이트 경선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다. 윤지를 쫓던 경선이 어느새 윤지의 여정에 동행하며 윤지의 선택을 돕는다.	
기획의도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몸과 권리, 사랑과 책임, 사회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캐스팅		심수빈(윤지 역) 조용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는 고1 여고생. 담임선생님 종성과 연인사이라는 걸 룸메이트 경선에게 들키면서 가장 큰 비밀인 임신 사실까지 드러난다. 윤지는 잠적한 종성이 돌아올 거라 믿는다.
		이지원(경선 역) 교실의 인싸 고1 여고생. 학생들에게 전자담배 액상을 팔아 돈을 모으는 중이다. 제법 수완 좋게 단골관리를 한다. 목돈을 마련하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가서 한국엔 안 돌아오고 싶다.
		장선(경선 역) 종성의 아내. 갑작스런 남편의 실종과 죽음에 혼란스럽다. 종성과 윤지의 관계를 알게 되지만 종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영화 작품정보

[장편과정 18기 실사극영화]

작품명	아코디언 도어 (영문제목: The Accordion Door)
작품정보	<p> 각본/연출 손경수 촬영 김진형 프로듀서 문혜선 출연 문우진, 이재인, 김건, 옥지영, 황순미 러닝타임 약 1시간 50분(예정) 장르 성장 드라마, 미스터리 제작연도/날짜 2024년 (크랭크인 2024.10.27. / 크랭크업 2024.11.30.)</p>
시놉시스	<p>중학교 3학년 지수는 9살 이전의 기억이 없다. 미아가 되었던 어린 시절, 언성이 높았던 엄마와 아버지를 피해 숨은 ‘아코디언 도어’ 안 청소칸에서 본 지렁이 같은 ‘외계인’이 자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믿는다. ‘그것’이 지수에게 글쓰는 재능을 선물해 주었다.</p> <p>다소 왜소하지만 급상하게 생긴 외모와 준수한 성적, 무엇보다 글짓기 대회에서 학교 대표로 나가 상을 받아오는 지수에게 학교생활은 무척이나 쉽다. 나서지 않아도 ‘인기투표’로 반장이 되고, 여자애들의 관심을 받는다. 시끄러운 지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 휴대폰도 쓰지 않는다. 그때, 축구하는 여자애 현주가 전학 온다.</p> <p>해사한 웃음과 보이시하고 털털한 매력, 지수는 곧 현주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일렁거리는 밤의 학교에서 현주를 만나거나, 높은 층에서 뛰어내리는 성장통 같은 꿈.</p> <p>이상한 일은 일상에서도 이어진다. 수업 시간 창가 자리에 앉아 축구하는 현주를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과서에 괴랄한 낙서를 하고 마는 지수.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깜짝 놀라 기절을 하고 만다. 양호실에 누워있을 때 마침 현주가 들어온다. ‘아코디언 도어’ 틈새로 현주를 바라보던 지수는 현주와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p> <p>두 사람은 급격하게 가까워진다. 엄마가 시인이라는 현주에게 지수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함께 현주엄마의 시화전에 가기도 한다. 휴대폰이 생긴 지수는 현주로부터 SNS도 소개 받는다. 현주와는 내밀한 얘기도 주고받는다. 실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현주를 지수는 더 좋아하게 된다. 지수는 슬슬 글쓰기에 소홀해진다.</p> <p>수변공원에서 현주와 공을 주고받다가, 현주에게 설부른 고백을 하고 만다. 어색한 공기에 공을 뺄 차버리고는 공을 줍기 위해 강가로 다가간다. 거기서 한 남자의 시체를 발견한다. 지수가 깜짝 놀라 물에 빠지고, 현주가 지수를 구한다. 정신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지수는 물속에서 ‘그것’이 현주에게로 꾸물꾸물 향하는 것을 본다.</p> <p>눈을 뜬 지수, 자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 총명함은 사라지고, 글이 써지지 않</p>

	<p>는다. 반면 현주의 축구실력은 일취월장한다. 지수는 초조해진다. 현주에게 고백에 대한 답을 물었다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절을 받아들인다. 여자 축구부 아이들과 현주가 자신의 고백을 희화화하는 모습마저 보게 된다. 지수는 다시 재능을 찾고 싶다.</p> <p>현주가 전국대회를 나가기 직전, 시인인 현주엄마네 문학관에 함께 놀러가게 되는 지수. 근처의 폐 드라마세트장을 현주와 함께 걸다가, ‘돌려줘’, 현주에게 겁을 주게 된다. 두려움을 느낀 현주가 도망가다가 못을 밟는다. 지수는 피 나는 현주의 발에서 ‘그것’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으려 현주의 발을 비튼다. 이 일로 지수는 ‘학폭 5호’ 처분을 받는다.</p> <p>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에 간 지수. 키가 훌쩍 컸다. 글 쓰는 걸 그만두고 마이스터고(실업계)에서 제과제빵을 배우고 있다. 산책을 하다가 아저씨들과 조기축구를 하고 있는 현주를 마주친다. 현주와의 대화에서 현주가 여전히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무언가를 깨닫는다. ‘여전히 잘돼?’ 나는 물음에 ‘여전히 좋아해’라는 답을 듣는 지수.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만의 글을 쓴다.</p>						
<p>기획의도</p>	<p>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호시절. 영원할 줄 알았던 재능의 샘이 어느 샌가 멈춰버리고 더 이상 내가 빛나지 않을 때,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내가 과연 같은 사람인가 물어본 적이 있다.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 계속할 수 있다는 단순한 답은 계절처럼 한 템포 늦게 찾아왔다.</p>						
<p>캐스팅</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2 1115 582 1429">  </td> <td data-bbox="582 1115 1434 1429"> <p>문우진(지수 역) 자신에게 재능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문학소년. 좋아하는 여자애에게 고백하던 날, 그 존재가 그녀에게 향하는 것을 본다.</p> <p>Filmography. 영화 <검은 수녀들> <하이재킹>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무인도의 디바> <열혈사제> 외</p> </td> </tr> <tr> <td data-bbox="352 1429 582 1742">  </td> <td data-bbox="582 1429 1434 1742"> <p>이재인(현주 역) 보이시한 축구소녀. 밝은 성격과 해사한 미소로 지수를 반하게 만든다. 재능보다는 좋아서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p> <p>Filmography. 영화 <하이파이브> <행복의 나라로> <사바하>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서울> 외</p> </td> </tr> <tr> <td data-bbox="352 1742 582 2038">  </td> <td data-bbox="582 1742 1434 2038"> <p>김건(종윤 역) 지수의 친한 친구. 유사과학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과학키드. 외계인에 대해 믿으며 우주 풍선을 발사한다.</p> <p>Filmography. 영화 <히트맨2> <좀비탈>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외</p> </td> </tr> </table>		<p>문우진(지수 역) 자신에게 재능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문학소년. 좋아하는 여자애에게 고백하던 날, 그 존재가 그녀에게 향하는 것을 본다.</p> <p>Filmography. 영화 <검은 수녀들> <하이재킹>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무인도의 디바> <열혈사제> 외</p>		<p>이재인(현주 역) 보이시한 축구소녀. 밝은 성격과 해사한 미소로 지수를 반하게 만든다. 재능보다는 좋아서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p> <p>Filmography. 영화 <하이파이브> <행복의 나라로> <사바하>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서울> 외</p>		<p>김건(종윤 역) 지수의 친한 친구. 유사과학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과학키드. 외계인에 대해 믿으며 우주 풍선을 발사한다.</p> <p>Filmography. 영화 <히트맨2> <좀비탈>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외</p>
	<p>문우진(지수 역) 자신에게 재능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문학소년. 좋아하는 여자애에게 고백하던 날, 그 존재가 그녀에게 향하는 것을 본다.</p> <p>Filmography. 영화 <검은 수녀들> <하이재킹>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무인도의 디바> <열혈사제> 외</p>						
	<p>이재인(현주 역) 보이시한 축구소녀. 밝은 성격과 해사한 미소로 지수를 반하게 만든다. 재능보다는 좋아서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p> <p>Filmography. 영화 <하이파이브> <행복의 나라로> <사바하>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서울> 외</p>						
	<p>김건(종윤 역) 지수의 친한 친구. 유사과학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과학키드. 외계인에 대해 믿으며 우주 풍선을 발사한다.</p> <p>Filmography. 영화 <히트맨2> <좀비탈>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외</p>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영화 작품정보

[장편랩과정 1기 실사극영화]

작품명	간첩사냥 (영문제목: Unlikely Allies)	
작품정보	각본/연출 이준혁 촬영 김현우 프로듀서 홍지혜 손빛나 출연 박세진 민경진 허준석 고도하 러닝타임 약 97분 장르 코미디, 드라마, 버디무비 제작연도/날짜 2024년 (크랭크인 2024.9.30. / 크랭크업 2024.10.25.)	
시놉시스	민서(27세/여)는 군인 영훈을 간첩으로 의심하고 있다. 은밀하게 영훈을 조사하던 민서가 마침내 공격을 결심한 어느 날, 민서는 그의 집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영훈을 기다리던 민서 앞에 나타난 것은 백발의 노인 장수(70세/남). 황당한 타이밍에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함께 간첩 사냥에 나서기로 결정한다.	
연출의도	그들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캐스팅		박세진(오민서 역) 동생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영훈을 쫓는 여자. 출연작: <미성년> (2019), <하이클래스> (2021), <대외비> (2023) 등
		민경진(양장수 역) 영훈을 간첩으로 의심하는 정체불명의 노인. 출연작: <범죄도시> (2017), <사냥개들> (2023), <유괴의 날> (2023) 등
		허준석(박영훈 역) 남한으로 넘어온 뒤 직업 군인이 된, 수상한 탈북민. 출연작: <멜로가 체질> (2019), <스위트홈> (2020), <키마이라> (2021) 등
		고도하(홍단 역)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쪽으로 파견된, 순수한 북한 간첩.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영화 작품정보

(KAFA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작품명	영화학교는 나왔지만... (영문제목: I Graduated Film School, But...)
작품정보	<p> 각본/연출 김동령 촬영 심나운 프로듀서 박경태 제작 웃음과 바늘 필름 제공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연 조근식 이소현 등 러닝타임 약 130분 제작연도/날짜 2025년 (크랭크인 2023.3.1. / 크랭크업 2024.3.1.)</p>
시놉시스	<p>이 다큐멘터리는 2023년, 개교 40주년을 맞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의 교육 현장과 운영 시스템을 밀착 관찰하며,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영화학교의 역할을 탐구한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 창작과 행정, 국가와 시장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조율되는 이곳에서, KAFA는 어떻게 미래의 영화인을 길러내는가?</p>
연출의도	<p>영화는 단순히 창작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교육, 행정, 산업,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영화라는 결과물만을 보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배경을 간과하곤 한다. <영화학교는 나왔지만...>은 한국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영화 창작의 시스템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조율의 과정을 들여다본다.</p> <p>이 다큐멘터리는 특정한 서사나 인터뷰 중심의 형식 대신, 학교라는 살아있는 공간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순간들, 교수들이 평가하고 고민하는 과정,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까지, 영화가 탄생하는 토양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자 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학교의 내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영화교육 기관이 국가와 산업, 예술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다.</p> <p>특히 KAFA는 공공 기관이면서도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장소다. 예술과 산업, 창작과 평가, 지원과 성과 같은 요소들이 긴장 속에서 공존하며,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조화롭게 흘러간다. 카메라는 이러한 충돌과 조율의 순간을 면밀히 따라가며, 한 영화학교의 운영 방식이 곧 한국 영화가 놓인 환경을 축소한 모습임을 보여준다.</p> <p>나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히 KAFA의 내부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조건과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한 세대의 창작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미래의 영화인들을 길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스템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가? 이 다큐멘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한 한 가지 기록이자, 영화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다.</p>